

# 워라벨 성큼? 광주 취업시간 주 30시간대 진입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난해 광주지역 평균 취업시간이 처음으로 주 40시간 아래로 진입했다.

일과 일상의 균형을 맞추자는 '워라벨' 문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고용의 안정성과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6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광주 39.0시간, 전남 38.4시간으로 집계됐다. 한 주에 40시간이 채 되지 않게 일했다는 뜻이다.

광주 평균 취업시간이 주 40시간을 밑돈 것은 통계를 낸 1989년(56.9시간)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광주 취업시간은 지난 2015년 43.9시간 이후 43.6시간(2016년)→42.8시간(2017년)→41.2시간(2018년)→40.7시간(2019년)→39.0시간(2020년)으로 5년 연속 하락했다.

전남은 지난 2016년(39.6시간) 광주보다 먼저 30시간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이듬해 39.8시간으로 다시 늘어난 뒤 40.0시간(2018년), 39.8시간(2019년), 38.4시간(2020년) 등으로 2년 연속 줄고 있다.

지난해 39시간으로 5년째 하락...전남 38.4시간  
코로나19 장기화에 고용 안정성과 질 하락 우려

지난해 전국 평균 주당 취업시간은 39.0시간으로, 광주와 동일했다. 전국 평균 취업시간도 지난 2019년 40.7시간에서 지난해 39.0시간으로 처음 '30시간대'에 들었다.

올해 1월1일부터 30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대상이 되면서, 지난 달 주 53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 수는 지역에서 전년보다 4만1000명이나 줄었다.

올해 1월 주 53시간 이상 취업자 수는 광주 8만 6000명·전남 8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21.0%(-2만3000명), 17.9%(-1만8000명) 줄었다.

전달인 2020년 12월에 비해 광주는 9.9%(-1만 명), 전남은 13.2%(-1만3000명) 감소했다.

연초 취업(근무)시간별 취업자 증감을 보면 광주 지역에서는 '주 15-35시간'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만1000명 증가했다. 53시간 이상은 2만3000명 줄고, '36-52시간'(-1만3000명), '1-14시간'(-4000명) 취업자도 감소했다.

지난 한 해를 두고 광주·전남 취업자 증감(합산)을 따지면 '36-52시간' 취업자가 3만4000명 줄며

■광주·전남 주당 취업시간 변화 추이 (단위:시간)



52시간'(-1만3000명), '15-35시간'(-2000명) 등 1-14시간(전년과 동일)을 제외한 모든 시간대에 취업자가 감소했다. 대신 일시휴직자가 전년보다 4000명 감소했다.

지난 한 해를 두고 광주·전남 취업자 증감(합산)을 따지면 '36-52시간' 취업자가 3만4000명 줄며

가장 큰 감소 폭을 드러냈고, '53시간 이상'(-2만 4000명), '1-14시간'(-3000명)도 줄었다.

반면 15-35시간 취업자는 광주 2만명·전남 9000명 등 2만9000이 전년보다 증가했다.

한편 취업정보포털 사람이이 최근 중소기업 400 개사를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해 물어보니, 절반 정도(50.3%)가 아직 대응 방안이 부족하거나, 대응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은 '불필요한 업무 감축'(36.3%·복수 응답)이나 '유연근무제 실시'(28%), '인력 추가 채용'(24.8%), '집중 근무시간 운영'(23.3%), '회의, 업무보고 간소화'(16.8%), '설비 기계화 도입'(9.3%) 등으로 주 52시간제에 대처하고 있었다.

주 52시간제에 채용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 답한 180개사 가운데 62.8%는 '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근로 형태는 '정규직'(46.9%),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34.5%), '비정규직'(18.6%) 등의 형태 순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가장 보완이 필요한 조치로는 '일간 또는 월간 사용 한도 기업 재량으로 조정'(41.8%)을 꼽았다. 다음은 '선택적 근로의 정상기간 기준 확대'(32%),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 요건 완화'(20.3%) 등 순으로 답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163.25 (+16.25)
↓ 코스닥	977.74 (-4.23)
↓ 금리(국고채 3년)	0.984 (-0.014)
↓ 환율(USD)	1100.10 (-1.30)

## 벤처 투자 인색

### 광주 253억·전남 125억 그쳐

지난해 벤처기업 투자금액이 전남이 전국 꼴찌였고, 광주는 17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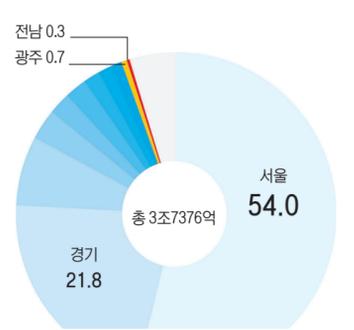
1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벤처기업 투자금액은 광주 253억원·전남 12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벤처투자 규모는 3조3736억원으로, 광주는 0.7%, 전남 0.3%의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은 전체 투자금액의 54.0%(2조176억원)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경기(21.8%), 대전(6.9%), 부산(3.1%), 경북(2.4%), 충남(2.0%), 인천(1.9%), 충북(1.3%), 제주(1.0%)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역 벤처기업은 광주 486명·전남 306명 등 792명을 고용했다.

■전국 벤처투자 규모 (단위:%)



1년 전에 비해 광주는 74명(18.0%), 전남은 83명(37.2%) 증가한 수치다.

전국에서는 4만828명에서 5만3452명으로, 1년 새 1만2624명의 벤처기업 고용이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서울(7407명)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전남과 광주 고용 증가 수는 전국에서 각각 12번째와 13번째를 차지했다.

지난해 고용 증가 인원을 업종별로 보면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가 2만118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유통·서비스(9066명), 바이오·의료(4942명), 전기·기계·장비(4754명), 화학·소재(3623명) 등의 순이었다.

개별 기업 중에서는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의 고용이 가장 많이 늘었다.

컬리는 지난해 말 기준 1048명을 고용해 1년 전보다 688명(191.1%) 증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금호타이어 임단협 타결

### 교섭 8개월만에...소송 '화해 종결' 등 합의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2020년 임금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최종 가결시켰다.

16일 금호타이어와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 등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광주·곡성·평택공장에서 '2020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50%가 넘는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 최종 가결됐다. 지난해 7월 임단협을 시작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해 7월 본교섭 상견례 이후 협상을 이어왔으나 쉽게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노조는 지난달 임단협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쟁의 신청을 한 바 있다.

이어 이날 초 본 교섭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노조는 지난 5-6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상여금 지급 방식에 대한 입장차

로 이튿날인 6일 투표를 중단하는 등 진통이 따르기도 했다.

금호타이어 노사의 잠정합의안은 크게 임금 동결과 생산·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한 격려금 100만원 지급, 고용안정보장 협약, 미래비전에 관한 실천 합의, 통상임금 소송 해결 등을 담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의 경우 상여의 기본급화에 따른 기본임당 인상분은 2회 분할 적용, 과거분(소급분)은 현재 진행중인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이후 수당 소송을 포함한 일체의 소송은 화해 종결하며, 추가 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사는 이날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최종 가결됨에 따라 17일 오후 임단협 조인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봄내음 물씬 16일 ㈜광주신세계는 설 연휴가 지나자 각 매장을 형형색색의 봄 신상품으로 새단장했다. 3층 '스큘마보니' 매장은 오는 21일까지 운동화 12종 신상품을 3만원 할인 판매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특

##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를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